2027학년도 수시 모의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예시 답안

Ⅰ. 전반적인 출제 의도 및 특징

202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의 모의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한 학업역량과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출제하여 입학전형의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단순한 지식의 암기 여부를 평가하기보다,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술고사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를 비교, 분석하며,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전개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함께, 다양한 교과 영역의 내용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모의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동서양의 고전, 문학작품, 사회/문화 관련 비평 등 다양한 제시문을 활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핵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모든 제시문과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되었으며, 별도의 선행학습이나 정규 교육과정 밖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수험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적절히 변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공교육 중심의 학습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학생 선발이라는 논술고사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Ⅱ. 문항의 구성

본교의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논술의 성격을 지닌다.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인문학적 이해 능력과 사회과학적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며, 이에 더하여 통합적 사고, 비교 및 대비 능력, 표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문Ⅰ 모의논술고사는 인문학적 소양과 사고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1개의 영어 제시문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제시문이 활용되었다.

인문Ⅱ 모의논술고사는 논리적 추론 능력과 자료 해석 능력을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5개의 제시문과 2개의 소제시문이 활용되었다.

자연Ⅰ, 자연Ⅱ 모의논술고사는 방정식, 함수, 수열, 극한, 함수의 미분 및 정적분, 확률과 통계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제당 3~5개의 소문항이 제시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착안, 기획, 수행에 이르게 하는 수리적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Ⅲ. 유형별 문항분석

1. 인문 I

[문항1] (1)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학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제시문 [가]의 입장과, 정책을 정당화하는 제시문 [나]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20점]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영어 제시문 [나]의 핵심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국어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학교의 역할에 대한 제시문 [가]와 정책의 기능을 설명하는 제시문 [나]를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학생들은 제시문 [나]에서 정책이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조정하고 권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를 공론 형성의 장으로 이해하는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료 출처

- 제시문 [가]: 김태웅 외, 고등학교『동아시아사』, 미래엔, 2018, p.119에 수록된 황종희의『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의「학교」편
- 제시문 [나]: 2026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EBS 수능특강『영어독해연습』, 2025, p.142

■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학교를 단순히 선비를 양성하는 공간이 아니라 천하의 옳고 그름을 공론하는 장소로 본다. 삼대의 학교는 공공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도덕적 질서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반면 삼대 이후의 학교는 공론 기능을 상실하고 과거와 부귀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제시문 [나]는 정책(policy)이 단순한 행정 수단이 아니라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임을 설명한다. 정책은 개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특정 지도자의 개인적 판단보다 정책 자체를 권위의 근거로 삼아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심지어 위계적 권위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정책은 구성원들의 행동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학교에서의 교복 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정책이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학교와 사회 질서 형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가]가 학교를 공론과 도덕적 판단의 중심 공간으로 이해하는 데 비해, [나]는 정책이 구성원의 행동을 조정하고 권위를 정당화하는 기능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가]는 공론의 형성을, [나]는 정책을 통한 행동 규율과 권위 정당화를 사회 운영의 핵심 원리로 본다는 차이가 있다.

■ 예시 답안

제시문 [나]는 정책(policy)을 단순한 행정 수단이 아니라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정책은 개인이 원하지 않던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특정 지도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권위의 근거로 삼아 의사결정을 정당화한다. 또한 정책은 위계적 권위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의 행동

기준으로 작용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조정하고 권위를 정당화하는 핵심 장치인 셈이다.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 학교는 원칙적으로 단순히 선비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천하의 옳고 그름을 공론하는 공간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학문과 도덕에 젖어 들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나]에서도 사회 질서를 강조하는데, 여기에서는 정책이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질서 유지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므로 두 제시문에서는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공적인 기준과 제도를 통해 사회가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제시문이 주목하는 사회 운영의 원리는 다르다. [가]는 학교를 공론 형성과 도덕적 판단의 중심 공간으로 이해하며, 사회 질서의 근거를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적 토론과 도덕성 함양에서 찾는다. 이와 달리 [나]는 정책이 행동을 규율하고 권위를 정당화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질서의 형성 원리를 설명한다. 따라서 [가]가 공론과 도덕적 교화를 강조하는 반면, [나]는 정책을 통한 행동 조정과 질서 유지의 원리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항1] ⑵ 제시문 [다]의 묵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삼대 이후의 학교를 비판하시오. [20점]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제시문 [다]에서 묵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논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것을 제시문 [가]의 삼대 이후 학교라는 다른 맥락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묵자의 비악론(非樂論)이 단순히 악(樂)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예(禮)의 외형을 갖춘 대상이 실질적으로 공공이익을 침해한다는 구체적인 논거를 내포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 논리의 구조 자체가 학교 제도의 변질과 어떻게 조응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 자료 출처

- 제시문 [가]: 김태웅 외, 고등학교『동아시아사』, 미래엔, 2018, p.119에 수록된 황종희의『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의「학교」편
- 제시문 [다]: 2026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EBS 수능특강『독서』, 2025, p.224.

■ 문항 해설

제시문 [다]에서 묵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논리는 두 층위로 구성된다. 첫째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이다. 당대 유가의 악은 겉으로는 예(禮)를 잘 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 오락에 불과하다. 특히 묵자는 공자 스스로 멀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던 정나라의 선율보다 당대 유가의 악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둘째는 공공이익 침해이다. 유가의 악은 노동하는 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의 재물을 줄어들게 만들며, 이는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 논리를 제시문 [가]의 삼대 이후 학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성립한다. 첫째, 삼대 이후의 학교는 교육이라는 형식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지만, 실상은 과거 합격과 부귀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였다. 유가의 악이 예의 외형을 빌려 오락을 정당화한 것과 구조가 동일하다. 둘째, 삼대 이후의 학교는

성왕이 설계한 공론의 법도에서 벗어나, 조정의 권세와 소수 관료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작동함으로써 천하 백성의 공적 이익을 침해한다.

■ 예시 답안

제시문 [다]에서 묵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논리는 두 가지이다. 첫째, 형식과 실질의 괴리이다. 유가의 악은 겉으로는 예(禮)를 잘 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 오락에 불과하다. 특히 묵자는 공자 스스로 멀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던 정나라 선율보다도 당대 유가의 악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예의 외형을 내세울수록 실질적인 해악이 오히려 가려진다는 점에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둘째, 공공이익 침해이다. 유가의 악은 노동하는 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의 재물을 줄어들게 만들며, 이는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어긋난다.

이 논리를 제시문 [가]의 삼대 이후 학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성립한다. 첫째, 삼대 이후의 학교는 교육이라는 형식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지만, 실상은 과거 합격과 부귀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였다. 나아가 선비를 양성하는 최소한의 기능조차 상실하였으니, 교육의 외형이 유지될수록 그 실질과는 더욱 괴리된다. 둘째, 삼대 이후의 학교는 성왕이 마련한 공론의 법도에서 벗어나, 조정의 권세와 소수 관료의 사익을 위해 작동함으로써 천하 백성의 공적 이익을 침해한다. 묵자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형식만 남고 실질을 잃은 채 공공이익마저 침해하는 삼대 이후의 학교는 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항2] 제시문 [라]의 인격 동일성에 대한 관점들을 정리하고, 칸트의 관점에서 [마]의 개인 동일성 이론들을 평가하시오. [30점]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제시문 [라]에서 데카르트, 로크, 칸트의 인격 동일성 내용과 칸트의 데카르트 및 로크 비판 지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시문 [마]의 개인 동일성 이론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 특히 인격 동일성에 대한 칸트의 주장과 다른 철학자 비판을 구분하여 비판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인의 수적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논리적 연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자료 출처

- 제시문 [라]: EBS 올림포스『독서』, 2019, p.24.
- 제시문 [마]: 2026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EBS 수능특강『독서』, 2025, pp.98-99.

■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우리가 서로 다른 시간대의 자신이 동일한 자아임을 설명하는 인격 동일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러 철학자 가운데 데카르트의 사유의 동일성, 로크의 기억의 동일성을 제시한 후 칸트의 입장을 설명한다. 칸트는 데카르트와 로크를 비판하는데, 특히 데카르트에 대해서는 그의 가장 기본 전제인 영혼의 존재가 논증되기 어려움을 들어 데카르트의 논지를 비판하고 있다. 이후 복수의 주관이 동일하게 '나'로서 사유한다면 그것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지된다는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제시문 [마]는 같은 인격 동일성에 관한 글이지만, 더 폭넓은 의견들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신체 이론, 영혼 이론, 심리 이론이라는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한 글이다. 이 가운데 영혼 이론은 개인의 동일성의 근거를 영혼으로 보는 입장으로, 데카르트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심리 이론은 기억의 연속성을 중점에 두는 입장으로, 로크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대한 주장 및 데카르트와 로크 비판을 바탕으로 세 이론에 대한 평가를 유추할 수 있다. 첫 번째 신체 이론에 대해서, 칸트는 신체가 개인 동일성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두 번째 영혼 이론에 대해서, 제시문 [라]에서 칸트는 영혼의 존재 유무를 논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 번째 심리 이론에 대해서, 칸트가 로크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이 이론 역시 설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제시문 [라]에서 데카르트는 인격의 동일성이 사유의 동일성이라고 보았다. 그는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고, 신체 이외에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 영혼을 상정한다. 그리고 모든 사유는 영혼에 귀속되므로,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영혼, 즉 존재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로크는 기억의 연속성은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며, 이것이 인격의 동일성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인격 동일성을 복수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선행하는 주관에서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내가 사유하는 것이라면, 복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동일성의 신체 이론에 대해서 칸트는 영혼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 칸트는 사유 주체가 동일한 인격을 인식하는 주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게 신체는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영혼 이론에 대해서, 칸트는 알 수 없다고 평가할 것이다. 칸트는 데카르트의 논증 방식을 통해서는 영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시문 [라]에서 칸트 자신도 영혼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라]에 보이는 칸트의 관점에서 영혼이 개인 동일성의 핵심이 된다는 영혼 이론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론이다. 심리 이론에 대한 평가는 칸트의 로크 비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칸트는 로크를 비판하며 기억의 연속성만으로는 인격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심리 이론에서는 나에게만 속한 기억, 느낌 등 각종 '나'의 정보와 그 연속성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한 내가 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느낌이나 기억은 사유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칸트의 관점에서 심리 이론은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다.

[문항3] 제시문 [바]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사]의 '사복 제정 준비위원회'를 비판하시오. [30점]

■ 출제 의도

제시문 [바]는 정책의 결정 방법 중 하나인 신엘리트론에 대해 설명한 글이며, 제시문 [사]는 회사에서 제복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과 개인, 억압과 자유의 문제를 다룬 현대소설이다. 이 문항에서는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상이한 장르의 두 글을 읽고, 그 내용의 핵심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바]의 핵심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 그리고 제시문 [사]에 나타난 동림 산업의 '사복 제정 준비위원회'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파악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바]의 정책 결정 방법을 [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과 분석력, 그리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자료 출처

- 제시문 [바]: 2026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EBS 수능특강『독서』, 2025, p.126.
- 제시문 [사]: 윤흥길,「날개 또는 수갑」,『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지성사, 2001. (2025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EBS 수능특강『문학』, 2024, pp.187-189)

■ 문항 해설

제시문 [바]는 정책의 결정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정책 결정이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신엘리트론에서 지배 엘리트들은 출신, 경력, 생활 양식 등에서 동질성을 가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주도한다는 특징을 지니기에 정책에 대중의 의견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을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위협이 되는 이슈를 배제하는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제시문 [사]는 동림 산업에서 회사 제복(社服)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사장은 사우 간의 일체감 조정을 위해 제복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사복 제정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회사에서는 회람을 통해 사복 제정 준비위원회를 알리고, 부서마다 준비위원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복을 반대하는 의견을 억압적으로 원천 봉쇄함으로써 회사 운영진의 의견만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예시 답안

제시문 [바]에서는 정책 결정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다원주의의 입장과 신엘리트론의 입장으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정책 결정이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지배 엘리트들은 출신, 경력, 생활 양식, 직책상의 상호 연관성 등에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기에 보수적인 성격을 띠며,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들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안만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안을 배제하는 무의사 결정을 보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동림 산업에서 회사 제복(社服)을 제정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장은 사우 간의 일체감

조정을 위해 제복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사복 제정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부서별로 준비위원을 선정하는 등 사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과장이 독단적으로 준비위원을 추천하고, 제복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등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회의의 소집 및 진행에서 있어서도 준비위원들이 사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기획실장이 회사 운영진이 결정한 초안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복 제정 지침을 통과시킨다.

[바]의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사]의 ‘사복 제정 준비위원회’를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는 사원을 준비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준비위원의 구성 방식이나 회의 과정에서는 지배 엘리트, 즉 회사 운영진의 입장만을 독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엘리트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사복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은 의제 설정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복 제정 준비위원회’는 민주주의적인 다원주의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회사 운영자들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엘리트론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